

그림 · 최주현

찰나찰나가 이승과 저승 자기 마음 따라 생기는 것

☞ 17면에서 계속

이것이 모두가 말대로 들지 마시고 백지와 글씨와 연필을 다 포함해서 본다면, 자기가 없다면 세 가지가 다 없듯이. 그래서 고것을 뜻으로 생각한다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보적이도 따로 없고, 보적이 아들도 따로 없고, 부처님도 따로 없으시고, 또는 부처님 큰 제자도 따로 없고, 보살도 온데간데가 없더라, 그러니 둘이 아닌 까닭에 생사열반이 둘이 아니다 이 소립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모든 걸 가리지 않고 망상을 끊지 않고, 끊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놓는다면 끊어지지 않으면서도 모든 걸 놓는 겁니다. 그리고 움죽거리지 않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망상을 끊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그대로 열반이니라.' 이겁니다. 좌선이 되면서 열반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하나 배워 들어가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이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도 그렇지마는 불가에서는 더군다나 몸이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비참하게 생각 안 합니다. 자식이 죽든, 부모가 죽든 여러분이 애탄지탄하죠. 물론 애탄지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만고만한 자식들을 두고 부모가 죽으면 그 애들이 불쌍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깐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거를 재료로 삼고 공부를 하시게끔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 들어도 그 속에 엄청난 뜻이 들어있으니, 장자 보적이 그 성에서 전체 장자 아들들과, 장자 아들과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 장자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장자가 있고 아들이 있고, 장자가 깨달았다면 그 아들과 장자는 둘이 아닙니다. 항상 둘이 아닌 까닭에, 모두 내 자리 아님이 없기 때문에 장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한 행을 하셨을 때 발꼬락 하나로 오백 개의 일산을 한데 합쳐서 삼천대천세계에 뒤덮었으니 얼마나 그 위력이, 아니 부처님만 위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우면 피서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기면 벌써 '아이구, 속상해.' 그러고 피하려고 그럽니다.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를 단호히 없애려고 하셔야 됩니다. 귀신이 백 명, 스무 명, 만 명이 온다 하더라도 그 귀신은 '나' 이기 때문에 귀신이 두렵지 않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은 그게 이해가 안 갈런지 모르지만 귀신이든 귀신이 아니든, 선이든지 악이든지, 부처든지 마구니든지 누구나가 불성은 똑같으면서 악하게 생각을 했다가도 다 준다면 아주 부처가 되는 겁니다. 누가 다 주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주는 도리를 배우십시오. 모든 거를 갖는 도리를 배우지 마시고 주는 도리만 배운다면, 철저하게 100% 준다면 100%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냥 무조건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다 버려야 내가 다 얻을 수 있고, 다 얻을 수 있어야 항복을 받을 수 있고, 항복을 받을 수 있어야 모두가 내 도량 아님이 없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ㄷ· 한생각에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 건질 수 있고, 내 나라를 건질 수 있고, 지금 앞으로 자라나는 애들의 모든 머리를, 즉 말하자면 물리가 터지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했는데 아직도 질문이 없습니까? 도인이라고 해서 정말 도인인 척하지 마시고, 도인도 이름이지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서부터 큰 것까지 행하는 데에 그것이 말없이 그대로 평등한 자재천국의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사시면서 '아휴, 이놈의 세상! 그냥 살기도 귀찮고 어떻게 된 놈의 세상이길래 바람결같이 흔들리고 저렇게 싸우고 모두 저렇게 하는 세상 아이구!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이 도리를 배우게 된다면 자재천국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본다면 지옥고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외도가 와서 부처님한테 질문하기를 "말씀을 해도 아니 되고 말씀을 안 해도 아니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깐 부처님이 묵묵히 앉아 계셨답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앉아 계신 걸 보고서 그 외도는 거기서 깨달아서 그냥 좋아서 "과연 사생자부이십니다." 하고 희유해서 날뛰니까, 아난이 "저 사람 왜 저러느냐."고 부처님한테 물었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아직 깨닫지 않은 때라 그럴지도 모르죠. 남의 속을 어떻게 압니까? 깨닫지 않고는 도저히 그 속을 모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신행회에 꼭 드셔서 신행담을 말하고 서로 토론할 때에 비로소 내 지혜가 넓어지고, 그래서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려고 해야 하는 거지, 그냥 넘어가는 거, 이것은 내가 자재천국의 내 자신이 자유권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그만큼 노력 없이 무슨 자재천국의 자재력을 그대로 융통성 있게 지혜 있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중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질문해 봐요.

> 병고든 가난이든
> 잘 안되는 일이든
> 닥쳐오는 대로
> 공부재료로 삼으세요

다 버려야 다 얻을 수 있으니
갖기보다 모든 것 줄 수 있어야…

▲질문자1: 제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제 마음을 깨우치고자 합입니다. 스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는 저희가 꿈을 꾸든가 어떤 걸 봤을 때 대략 그러하리라고 짐작은 갑니다만, 완전히 나라는 의식이 사라질 수는 있는 것인지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님: 항상 그거를 간단하게 비유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린애가 죽었는데 그 어린애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고에 들어갔답니다. 그랬는데 지옥고에 들어가다 보니까 물이 물로 보여서 건널 수가 없고, 불이 불로 보여서 건널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불에 타 죽을까봐 건널 수가 없고, 물에 빠져 죽을까봐 건널 수가 없고, 귀신들이 욱시글득시글하니까 귀신들한테 말려 죽을까봐 못 들어가고 애를 쓰는데, 어떤 노승이 나타나더니 "불도 불이 아니요, 물도 물이 아니요, 귀신도 귀신이 아니니라, 따로 없느니라." 하는 말에 고만 불로 어청어청 들어가니까 그것은 자기가 그려놓은 모습이지, 모습이 없으니까 불에 탈 리가 없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그 어린애 영혼을 다시 데리고 나와서 살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도 허영 많죠.

그런데 어떤 거는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 여러분이 직접적인 실험을 자꾸자꾸 해보십시오. 내 이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한찰나가 바로 저승이고 한찰나가 이승입니다. 한생각이 빛 보다 더 빨라서 천당에 가고, 한찰나에 지옥에 가고, 한찰나가 바로 이승이며, 이승의 천국이며, 이승의 지옥이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도 말로는 100%를 꼬집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나를 발견하고 발견하면서도 습을 떼고, 또 습을 떼면서도 둘이 아닌 도리를 배우는데 습을 떼고 뭉쳐놓고 가다보면은, 그 보적의 장자 아들이 일산을 왜 받쳤느냐? 칠보로 장엄을 했지만 둘이 아니게끔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고 맘대로 자유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열반, 계단을 밟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산을 받치고 열반계의 구정토를 다 증득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는 데에 참으로 손을 꼽고 기도를 하고 내가 잘되게 하지말고 내 한생각으로 그냥 돌아가게 하세요. 어디다가 대고 기도를 하면서 맹종해야 되겠습니까? 죽으나 사나 이끌고 다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신이라고 하면은 똑 참하겠는데 주인공이라고 그러는 건 왜 그러느냐? 자기 몸뚱이가 공했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죠, 먹는 것도 그렇죠, 가고 오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전부 그렇게 돌아가니 어떻게 주인공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주인공으로 인해서 움직이니 주인공이 적당한 이름입니다.

병고든지 가난이든지 안 되는 일이든지 되는 일이든지, 일체 만법의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닥쳐오는 대로 그거를 공부하는 재료로 삼으세요. 그런다면 앞으로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고 한번 쳐다보고 웃고 한번 내려다보고 울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를 겁니다. 학설(學說)로만 알아서 큰스님이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또 내가 다 알고 이렇게 행하니깐 뭐 물을 것도 없고 자실 것도 없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빨리 하겠다는 생각도 마시고요. 이것은 빨리 하겠다고 가는 것도 아니요, 빨리 안 하겠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목마르면 이렇게 그냥, 시간도 공간도 없이 내가 목마르면 그냥 마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두고 셋째 일요일날 또 만납시다. 그땐 질문 하시도록 하고. 또 그때는 무슨 얘기가 될런지 그때 상황대로, 나는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하고 올라온 겁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계시니까 그냥 입이 떨어지는군요. 허허허

※위 법문은 1990년 8월 5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元 · 氣 · 回 · 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쳐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장하다! 잘싸웠다!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

우리선수들은 수신토종오가피를 먹고 있습니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기상을 드높인 자랑스러운 우리의 태극전사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랑스러운 우리의 젊은이들!
그대들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놀란 우리 선수들의 지칠줄 모르는 체력!

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에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는다며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먹고 있는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 입니다.

오가피 알고봤더니 '金가피'

지난 98년 아시안게임때 국가대표 11개팀 68명의 선수들이 먹은 오가피는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였습니다. 최하위로 전년시즌을 마감한 롯데자이언츠가 우승을 차지할때도 수신토종오가피가 1년간 함께 했습니다. 지금 수신토종오가피가 자랑스러운 우리의 태극전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핑테스트와 무관한 자연식

대표팀 주치의 김현철박사는
"우리선수들의 체력증진에는 파워프로그램이 큰 구실을 했지만 보양식도 큰 역할을 했을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즉 우리 선수들의 지구력이 우리와 비슷한 파워프로그램으로 훈련한 다른 유럽 선수들에 비해 월등히 좋은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
대표팀 선수들은 3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세차례식사때 오가피를 먹고 있으며, - 중략 - 도핑테스트와 무관한 자연식이다.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에서 제공하고 있다. (동아일보 6월 20일 보도)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고있는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주문 · 문의전화 (02)447-0047